전매광장

대유민
전남청소년성문화센터장

양성평등 주간을 맞이하여

양성평등주간은 1996년부터 시행된 '여성주간'에 뿌리를 두고 있다. 2015년 7월 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돼 시행되면서, 해마다 7월 1일부터 7일까지 열렸던 '여성주간'이라는 명칭도 '양성평등주간'으로 개칭됐다. 2020년 한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 발표일 9월 1일을 기념해 9월 1일부터 7일까지로 변경됐고 따라서 올해 양성평등주간은 2020년 여권 통문의 날을 기념해 9월 1일부터 7일까지 지정하고 있다.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이란 122년 전인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의 평범한 나이든 기혼여성(소사·召史)을 일컫는 말로 김소사, 이소사의 이름으로 작성된 '여권통문'은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궐기로 시작된 '세계 여성의 날' 보다 무려 10년이나 앞선 것이다.

우리나라 성차별 아직 심각

당시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서 여성들도 문명 개화정치를 수행함에 있어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여성도 남성과 평등하게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고, 여성도 교육 받을 권리가 있는 참정권, 직업권, 교육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권통문 발표가 122년이나 흐른 지금, 여성의 인권과 성차별은 얼마나 나아지고 개선이 됐을까?

2021년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전국의 20대 600명, 30대 600명, 40세 이상 800명, 총 2,0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리서치의 웹조사에 따르면, 그 중 20대 여성은 사회구조적으로 자신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이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20대 여성들 중 71.3%가 한국에서 여성은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답했는데 원인으로 사회적인 구조를 꼽았고 20대 여성 73.7%가 가부장제와 성차별로 남성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응답했다.

또한 남녀임금격차는 2020년 현재 31.5%로 멕시코 9.6%, 슬로바키아 11%, 일본 22.5%보다 성별 임금격차가 크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5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근거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세계 성격차지수(GGI)에서도 우리나라는 매년 100위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사회 전반의 성평등 수준에서 성별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편견 깨는 의식 전환 절실

우리는 정책, 제도, 교육, 문화, 의식 등 늘 양성평등을 강조하며 당연하다고 모두 공감은 하고 있지만 실상 현실에서는 여전히 여성은 성차별적 구조와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불안한 사회에 살고 있다.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미투운동, 낙태죄 폐지 등은 성평등 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지만 그 중심에는 여성이라는 피해자가 존재한다. 일상생활에서 사회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

문득 30여 년 전 고 3때부터 절친인 아파트 옆 동에 사는 짝꿍이 생각났다. 그 친구는 공부를 잘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려 했으나 여자가 무슨 대학을 서울까지 가냐? 지방대 다니다 시집가면 되지라는 아버지의 반대에, 입대나 하겠다며 여군 하사 시험을 보고 합격했으나 교도관이었던 형부의, 무슨 여자가 군대를 가냐는 적극적인 만류로, 결국 아버지가 바라던 대로 지방 대학 졸업 후 결혼해 두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살고 있다. 그 친구는 가부장적인 제도와 남성중심적인 사회구조 때문에 자신이 여성으로서 차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라고 말끝을 흐릴 때는 농담으로 '시대를 잘못 타고 났어'라면서 서로 웃고 말지만 웃음 뒤엔 항상 안타까움과 씁쓸함만이 남는다.

122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별반 달라진 것은 없다. 양성평등정책, 제도 등의 실현은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의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해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는 의식 변화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가 아닐까 한다. 차별 속에 있는 수많은 절친을 위해 김소사, 이소사가 필요할 때이다.

사설

광주에 특급호텔도 휴양시설도 있어야

이용섭 광주시장은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조성사업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호텔도 필요하고 외부에서 즐길 수 있는 휴양시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상업시설 면적을 2만4,750㎡로 묶어두다 보니 수익성이 높지 않아 큰 기업들에게 매력이 없었다"며 광주도시공사가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어등산 개발사업은 정말이지 돌고 돌아 16년간 표류하다 이제 가닥을 추리는 모양새다. 지난한 협상과 좌초, 소송, 그리고 협상 뒤 결렬 등 행정적인 소모를 그만하고 제대로 갔으면 한다. 어등산 개발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대 41만7,500㎡에 휴양시설, 호텔, 상가 등을 갖춘 유원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2005년 계획 수립 이후 골프장만 들어섰을 뿐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 시장은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도시공사가 전체 개발을 하거나 도시공사가 기반공사만 하고 민간기업에서 호텔 또는 킬러콘텐츠를 채우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며 "다만 공공개발이 이뤄질 경우 사업성을 고려해 상가 면적을 넓히는 것은 편법으로 규정하고 기존 민간 사업자 공모 기준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도시공사가 직접 나설 경우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느냐다. 어등산 개발 총사업비는 4,800억원이 넘는다.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 이에 대한 철저한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대형 개발 사업에는 진통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여념이 없는 여수와 목포 등에서 이해 충돌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등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특급호텔과 고급 휴양시설이 없는 광주를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는가. 행정 당국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분발하기를 촉구한다.

보건노조 파업 결의, 대화로 해결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정부의 노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2일 예고된 총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광주·전남에서는 총 5,100여 명의 의료인력이 파업에 참여한다고 하니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민노총 광주본부 등에 따르면 2일 파업하게 되면 광주와 전남에서는 각각 11개, 3개 병원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에서는 전남대병원과 빛고을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광주기독병원, 광주보훈병원 등이 참여하고, 전남에선 강진의료원, 순천의료원, 목포의료원이 파업에 참가한다. 실제로 파업하게 되면 코로나 방역을 비롯한 의료현장에서는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코로나19로 대홍역을 치르고 있는 지난 1년 7개월 동안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우리는 다 안다. 국민들은 그래서 이들을 격려하고 고맙게 여기고 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그동안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또 감염전문병원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정부당국도 인지하고 있지만 예산 등을 이유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노조가 파업을 결의하게 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결의하자 속이 탄 정부는 조속하게 다시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비상진료대책으로 대응하겠다고 응답했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파업이 현실로 나타나면 확진자가 급증해 중증병상 대란이 우려되고 의료·방역체계가 대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코로나 19사태가 갈수록 위중해지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인력 충원 대책을 마련하고 노조의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국민 건강보다 우위에 있는 명분은 없다. 양측은 파국을 피하고 타협하기를 바란다.

에세이

비와 세월

탁현수
수필가·문학박사

여름의 뒷자락을 부여잡고 돌발적으로 찾아온 장맛비. 후텁지근한 대지를 그나마 시원하게 식혀줍니다. 징징하고 지루한 것이 장마라고들 하는데 반기지 않는 손님인 줄은 아는 모양입니다. 연일 보도되는 비의 난폭한 모습은 이제는 더할 수 없는 공포입니다.

기억 속의 비는 늘 설렘이고 기다림이었습니다. 지친 일상을 어루만지며 잠시 쉬어가게 하는 선물 같은 존재였다고나 할까요.

비 내리는 날은 무엇보다 조금은 느슨해진 심신으로 정서의 호사를 누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터무니없는 한 생각에 골똘히 빠져보는 것도, 조금은 벅차다 싶은 이상을 따라 날갯짓해보는 호기로움도 비가 오는 날엔 어색하지 않습니다.

비의 그런 마력은 철마다 시시때때로 다른 얼굴로 다가와 깊숙이 감성을 적셔줍니다. 수줍은 듯 연초록 잎새 위를 또르르 구르는 봄비는 어린 날의 풋풋함이 떠오르고, 한여름 뭉게뭉게 피어나는 흰 구름을 몰아내고 한바탕 쏟아지는 소낙비는 건장한 젊은이의 삶처럼 열정적이고 상쾌합니다. 긴 바바리코트 깃을 한껏 세우게 만드는 가을비는 삶의 뒤안길을 헤매다가 문득 회억의 언덕을 넘는 중년의 중후한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슬픔도 기쁨도 담담하게 받아들여 승화시키는 완숙미, 그래서 가을비를 비 오는 날의 대표적인 풍경으로 여기는지도 모릅니다.

비 내리기 전, 습기를 가득 머금고 머리채를 나부끼며 갈팡질팡 휘날리는 남풍. 그 마파람이 가량없이 좋기만 한 어린아이의 하굣길은 항상 시끌벅적했습니다. 회오리까지 동반해 마구잡이로 불던 바람 갈퀴에 한두 줄기씩 섞여 떨어지는 빗방울을 맞으려고 동으로 서로 펄쩍펄쩍 뛰곤 했지요. 책가방을 멀리 던져놓고 달리고, 또 던지고 달리기를 실성한 사람처럼 반복하며 깔깔거렸습니다. 인간 본성에 한층 충실해진다는 정신착란 환자가 비 오는 날 헤죽거리며 돌아다니던 모습과, 티끌 한 점 없이 해맑게 껑충거리던 아이의 행동을 연관 지어 봅니다.

유록의 숲에 내리는 오월의 비. 그 빗속을 헤매는 갈래머리 여학생이 있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 숲에 속삭이듯 토닥토닥 내리는 빗소리는, 숨이 콱 막혀버릴 것 같은 환희였습니다. 감격에 겨워 "우와! 무지개 빛깔로 비가 내리네!"를 연발했지요. 아름다운 숲과 건강한 청춘과의 만남에 가교역할을 했던 비. 그 눈부신 교감은 굳이 이양하의 '신록 예찬'을 들먹일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도심 공원 숲을 적시는 가을비. 대중가요의 노랫말이기도 한 '가을비 우산 속'을 동경하는 묘령(妙齡)의 여인이 있습니다. 비 내리는 늦가을 오후, 은행잎을 닮은 노란 우산을 쓰고 호젓한 공원 모퉁이를 걸을 때면 그 누구도 시인이 될 수밖에요. 불현듯 비를 피해 우산 속으로 뛰어든 사람이 '닥터 지바고'에 나오는 '오마 샤리프'를 닮아있기를,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나 주길 소망하며 한껏 우수에 젖어들곤 했습니다.

비 내리는 풍광을 예찬하는 불혹의 여인이 있습니다. 밖이 내다보이는 커다란 창문과 푹신한 의자,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이면 봄비 내리는 긴 하루쯤은 거뜬합니다.

프랑스 여가수의 부드러운 목소리라도 곁들여지는 날은 금상첨화지요. 콩깍지 안에 숨어 앉아 튼실하게 알갱이를 키우는 완두콩의 비밀처럼 혼자서 가질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추억의 비를 맞고 사는 중년의 여인이 있습니다. 뜰 안의 빗소리에 우두망찰 귀만 기울입니다. 달려 나가 흠뻑 젖어볼 생각도, 꿈을 꾸어볼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몰려왔던 밀물이 서서히 썰물로 사라져가는 뒷모습이 아득합니다. 하지만 그다지 쓸쓸하거나 허망하지만은 않습니다. 밀물이든 썰물이든 파도의 파문이나 노랫소리는 여전하니까요.

자연이 부르는 영원불멸의 노래 빗소리. 그 노랫소리만 울려오면 언제 어디서건 연초록 숲이 펼쳐진 세월의 강둑을 서성거립니다. 그리곤 작은 소녀가 되어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지요.

"이 비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풀빛이 짙어 오겠다."

독자광장

농기계 안전사고 경각심 필요

경운기 등 각종 농기계에 의한 교통사고와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각별한 안전의식이 요구되는 때이다.

예전같으면 소가 들녘을 누비며 논밭을 분주히 오고갔겠지만 기계화 영농이 보급된 요즘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이 농삿일을 대신하면서 정겨웠던 옛날 농촌 풍경은 더 이상 보기 어렵게 됐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선진 농업화와 편리함에 따라 보급된 이들 농기계가 언제부터인지 농부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로 다가오고 있다.

농기계는 차량과 달리 구조 특성상 특히 야간에 차량이 쉽게 발견할수 없는 경우가 많아 충돌시 운전자는 물론 뒷좌석에 탑승한 동승자 또한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야간 시인성 부족이 경운기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사고 발생시 치사율 또한 높아지게 된다.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야간운행을 자제하는 것이 상책이다. 도시와 달리 농촌지역의 경우 가로등이 드문 드문있어 상대적으로 어둡고 컴컴한 농로가 많다. 특히 야간에는 상대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앞서 주행중인 경운기 등 농기계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운전자 또한 농기계 운전자에 배려와 양보운전을 생활화하는 한편 한적하고 어두운 농촌길을 주행할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사고발생 위험이 높고 농기계의 야간이동이 잦은 농촌 도로구간에는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는 등 안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농기계 사고 예방책 마련이 절실한 요즘이다.

/김덕형 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방역수칙 준수해 코로나19 확산 막아야

기자수첩

황애란
정치부 차장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 된 가운데 델타 변이종 기승과 백신 수급 문제가 겹치며 좀처럼 확산세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광주 245명, 전남 165명이다. 최근에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산구 소재 외국인 검사 관련 확진자는 90명이다. 전남지역 외국인 확진자는 155명이다. 완도 수산업 종사자, 나주 일용직 근로자, 목포 외국인 선원 등 감염사례가 있었다.

외국인 확진자가 급증하자 방역당국은 지난달 16일부터 외국인 밀집도가 높은 광산구 주거 지역, 공단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진단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전남도도 외국인 고용 사업장, 근해어업 출항전 선박 등 내외국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추이를 보더라도 지난달 22일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광주 1일 평균 24.2명이다. 특히 지난달 677명이 확진돼, 지난 1월 TCS집단발생(717명) 발생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특히 델타 바이러스 감염도 53명으로 확인되는 등 우려되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결정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들은 정부가 내놓은 방역준칙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만 장기화되면서 피로도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더 상황은 심각해질 것이란 점이다. 방역당국은 대규모 인구이동이 있을 추석 명절이 코로나19 확산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정점을 알 수 없는 예측불허의 상황이다. 전 국민의 70%가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코로나 사태의 완전한 종식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 실천, 예방접종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최고의 백신은 방역당국에서 수 차례 밝힌 '방역수칙 준수'다. 일상생활에서 방역수칙을 실천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동참해야 할 때다.

생활정보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응급질병상담	1339
▲미아·가출인 신고	182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응급의료센터	1339

긴급전화

▲기상예보	131
▲법률구조상담	13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수도 고장신고	121
▲전기고장 신고	123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姜聲秀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정치부 (062) 720-1060~62	편집부 (062) 720-1073	기사제보	
경제부 (062) 720-1066~67	논설실 (062) 720-1006	•TEL (062) 720-1050~53	
사회체육부 (062) 720-1050~53	전산실 (062) 720-1033	•사회부장 010-5601-2219	
사회2부 (062) 720-1043	월간국 (062) 720-1007	•FAX (062) 720-1080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판매국 (062) 720-1004	•E-mail jndn@chol.com	
문화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1099	광고문의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TEL (062) 720-1016~17	
기획탐사부 (062) 720-1045~46	관리국 (062) 720-1012	•FAX (062) 720-1020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E-mail jnmi1000@hanmail.net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